

☑ NIM 축소 ☑ 코로나대출 총당금 ☑ 사모펀드 손실

경기 버팀목 은행마저... 빅4 순익 악화, 2.5조 밀돌 듯

하향 목표치보다 2분기 부진 전망
환매중단 사모펀드 손실 등 악재
은행당 총당금 1000억 넘지 않을 듯

은행권의 실적하락세가 본격화됐다. 실적 하향은 이미 1분기부터 시작됐지만 2분기는 낮은 눈높이보다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본적으로 금리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악화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출 연체나 부실에 대비해 총당금을 더 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에 대한 손실 등 악재가 겹쳤다.

6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신한·KB·하나·우리금융지주의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2조8527억원이다. 일부에서는 2조5000억원 선까지 낮췄지만 이마저도 밀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대 금융지주 2분기 및 연간 순이익 추정치> /에프앤가이드

구분	2분기(전년동기대비)	연간(전년 대비)
신한금융	8710억원(-18.6%)	3조2862억원(-9.8%)
KB금융	8767억원(-11.6%)	3조290억원(-8.6%)
하나금융	6137억원(-7.8%)	2조1944억원(-9.5%)
우리금융	4813억원(-26.8%)	1조8274억원(-10.3%)

올해 별다른 악재가 없었던 KB금융지주의 2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8767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신한금융과의 격차는 미미한 수준이다.

신한금융지주의 2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감소한 8710억원이다. 분기 순익 9000억원대를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리딩뱅크 자리마저 위태롭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1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각각 6137억원, 481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NIM은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기준금리 하락폭을 감안하면 대부분 선방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전배승 연구원은 "3월과 5월 금리 인하 영향으로 2분기 은행권 NIM은 하락하겠지만 수신금리 하락이 동반되고 있어 우려 대비 하락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평균 5bp(1bp=0.01%포인트) 미만으로 1분기와 유사하거나 일부 은행은 하락 폭이 축소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은행들 가운데서는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한 기업은행 정도만 NIM 하락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들이 경기침체 우려로 미리 자금마련에 나서면서 대출성장폭이 예상치를 웃돈 것도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문제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이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지난달 말에 "국제통화기금(IMF)과 미 연준에서도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자사주 매입금지 및 배당금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은행권에서는 이런 논의를 참고해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케이프투자증권 김도하 연구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성 총당금 전입이 전망된다"며 "실제 연체나 부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니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집합평가 대상의 개별평가나

신용손실 모형상 가정치의 인위적 보수와 등을 통해 전입하겠지만 아직 규모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은행별 실적 기댓값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국내 은행들의 코로나 총당금은 대규모로 적립한 미국 은행들과 달리 시중은행당 500~1000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대손충당금과 함께 금융지주별로는 사모펀드 관련 손실규모에 따라 실적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케이프투자증권 김 연구원은 "사모펀드 환매 중단 관련 비용도 책임소재나 협상진행, 회수율 등이 거의 미정임으로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신한금융 1700억원(증권사의 라임자산, 헤리티지펀드), 하나금융 490억원(은행의 라임자산), 우리금융 650억원(은행의 라임자산), 기업은행 300억원(디스커버리펀드)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KB금융, 고객 목소리 반영 '제안제도' 신설

고객중심 경영 확대·회사 운영 반영
상품·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 제안
연중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가능

KB금융그룹은 6일 '고객 제안' 제도를 신규 오픈했다고 밝혔다. 고객 중심 경영을 더욱 확대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다.

기존에 고객의 불편 사항을 온·오프라인에서 접수해 해당 결과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면 이번 고객 제안 제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고객이 어떠한 주제라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KB금융의 고객 제안 제도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

민카드, KB캐피탈, KB생명보험, KB저축은행 등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상품·서비스·제도 개선·신규사업 등 다양한 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각 회사의 홈페이지(PC) 및 모바일 앱 등에 있는 '고객 제안' 메뉴에 접속해 의견을 제안하면 된다. 연중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다.

또 우수한 의견을 제안한 고객에게는 KB포인트리 5만 포인트(1포인트는 1원)를 제공한다. KB포인트리는 KB금융의 통합 멤버십 플랫폼인 리브메이트(Liiv Mate)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리로 KB국민카드 이용대금 및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료 차감 등 KB금융의 계열사 상품 가입 시

활용하거나 계좌이체 및 ATM출금 등 현금처럼 쓸 수도 있다.

고객 제안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각 회사별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상품·서비스 개선 등 실제 경영활동에 반영될 예정이며, 고객 관점에서의 금융서비스 혁신에 중요한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새롭게 개편 오픈한 고객 제안 제도는 과거의 일회성 이벤트와는 달리 상시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실제로 KB금융에 반영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며 "항상 고객의 의견을 듣고, 고객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KB금융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지난 2019년 2월 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왼쪽에서 세번째)과 농협은행 손병환은행장(두번째), 농협파이낸스미안마 김종희법인장(왼쪽 첫번째) 출장단이 미안마 중앙은행을 방문해 미안마 중앙은행 Mr. Soe Thein부총재(왼쪽 네번째) 및 인허가 담당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

NH농협銀, 미안마 양곤사무소 설립 인가

신청서 제출 10개월만에 최종 인가
MFI 법인·범농협 계열사와 시너지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9일 미안마 중앙은행으로부터 양곤사무소 설립을 위한 최종 인가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8월 인가신청서 제출 이후 약 10개월 만의 성과다.

농협은행은 2016년 미안마 소매금융(MFI)법인인 '농협파이낸스미안마'를 설립해 소매영업에 대한 경험치를 축적해왔으며, 이번 사무소 설립으로 은행(지점·법인) 설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농협은행 양곤사무소는 미안마 금융당국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금융동향 모니터링 및 은행업 진출을 위한 사전 영업기반 구축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현지인 사무소장 채용을 통해 미안마 금융환경에 최적화된 제반 시스템 구축 등 글로벌 사업 현지화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안마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농협파이낸스미안마 뿐만 아니라 진출 예정인 범농협 계열사들과의 시너지 사업 역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우리은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약 102개 기준 심사 통과

우리은행이 국가공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획득했다.

지난 1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는 권광석 우리은행장, 김영기 금융보안원장 등이 참석했다.

ISMS-P는 금융회사에서 수행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활동이 국가공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인증 획득을 위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80개 기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22개 기준에 대해 금융보안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6일 "오늘 8월 데이터3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의



지난 1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ISMS-P' 인증서 수여식에서 권광석 우리은행장(왼쪽)이 김영기 금융보안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안전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은행의 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인증(ISO27701)과 ISMS-P 취득으로 우리은행 금융서비스에 대한 고객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앱 개편 1주년

SC제일은행이 모바일뱅킹 앱 개편 1주년을 기념해 3가지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우선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4간 빙고'를 완성하는 모든 고객에게 스타벅스 모바일교환권을 증정한다. 4간 빙고는 ▲모바일뱅킹 로그인 ▲앱 푸시 알림 동의 ▲타행 계좌 조회 ▲오픈뱅킹을 이용한 이체 거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또 모바일뱅킹 앱에서 퍼스트가계적금을 가입하는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경품은 스타벅스 모바일교환권, 지니뮤직 스마트음압감상 1개월 이용권, 왓차플레이 베이직 1개월 이용권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Sh수협銀 신한카드와 연 7.9% 혜택 '헤이친구적금'

Sh수협은행이 신한카드와 손잡고 최대 연 7.9% 혜택을 주는 모바일 전용 제휴적금인 '헤이(HEY!) 친구적금'을 출시했다.

헤이 친구적금은 월 최대 30만원, 6개월 또는 12개월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1인 1계좌만 가입가능하다.

헤이 친구적금은 기본금리는 연1.0%에 수협은행 마케팅동시 0.1%, 자동이체 등 추가 조건 달성시 0.8%의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여기에 신한카드 사용조건을 충족하면 연 6%의 우대금리성



특별리워드가 추가로 지급돼 최대 연 7.9%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유리 기자